

****해직투**

ROE:

return on equity, 당기순이익/자본총액

- A 기업이 1000 억을 들여 회사를 만들고, 1000 억으로 매년 100 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면, **ROE 는 10%**. 1000 억의 투자금액으로 200 억원의 이익을 낼 경우 ROE 는 20%

PER: 주가수익비율, 1 주 가격/주당 순이익(EPS)

PER ↑ 고평가, PER ↓ 저평가

- 예) 시가총액 1000 억인 회사에서 1 년

간 순이익이 100 억이 발생했다면,

PER 은 10.

즉, PER 10 인 회사는 순이익 100 억으로

10 년 벌어서 총 1000 억인 회사를 매입

할 수 있다는 의미

EV:

Enterprise value, 기업의 총가치, 시가총액+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예금)

기업의 미래수익을 합산하여 현재가치로 나타낸 것

기업 매수에는 기업의 지분(시가총액)+부채(순차입금)을 지불해야 온전한 소유주가 됨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지급전 이익 또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전 영업이익**

현금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이자, 세금을 더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

세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간의 비교분석 가능케 함

EV/EBITDA

: 기업의 내재가치와 기업가치를 비교하는 투자지표

비율이 낮다면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

EV/EBITDA 가 2 배라면 2 년의 원금회수기간임

M&A 를 위한 기업가치평가에 주로 활용

PER: 기업의 총가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 시가총액 기준으로 M&A 시, 몇 년을 운영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지를 가늠하는 잣대

EV/EBITDA 와 달리 감가상가가 적용되어 계산

EV/EBITDA 는 감가상각, 이자, 세금을 포함하여 기준이 명확하고 PER 보다 사실적임

원금회수기간 지표에 더 가깝다 볼 수 있음

1. 전대무씨는 퇴직금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억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연금을 일시불로 모두 받기를 고려하고 있다. 시장이자율이 5%일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풀이

$$PVA = A \times \left\{ \frac{(1+r)^n - 1}{r(1+r)^n} \right\} = 100,000,000 \times \left\{ \frac{(1+0.05)^{10} - 1}{0.05 \times (1+0.05)^{10}} \right\}$$

= 약 772,170,000원

• 연금의 현재가치를 이용할 경우, PVIFA(r = 5%, n = 10년)는 7.7217의 값을 가지므로 $PVA = 100,000,000 \times 7.7217 = 772,170,000$ 원

1. 시장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고,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무한정 받는 경우와 1억 원을 일시에 받는 경우,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풀이

단순히 생각하면 매년 1,000만 원씩 받으면 10년만 받아도 1억이고,

20년이면 2억, 무한대라면 엄청나게 큰 가치가 될 것 같지만,

$$PVP = \frac{A}{r} = \frac{1,000\text{만 원}}{0.1} = 1\text{억 원}$$

의 현재가치를

→ 결국, 두 경우의 가치는 동일.

영구연금

만기가 없는 채권의 경우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영구히 받음

동남아시아

1 차: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의 식민 지배

2 차: 일본의 지배

1402 년경 말라카 해협의 오랑 라웃 족 중심 말라카국 건국

중국의 정화 함대가 내항하여 전진기지 구축

■ 동남아 식민지배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도 1565년 Cebu 섬 점령을 시작으로 필리핀 식민화. • 이미 Luson 등 대부분 해안 지역이 이슬람화 되어 있어 저항이 거셌지만 1878년 남부 Sulu섬 술탄의 항복으로 식민지배 확립. •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패배로 미국에 양도돼 2차대전 중전까지 미국의 식민지로 유지됨. •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 주륙. 1858년 다낭, 그 이듬해 사이공 인근을, 1874년에는 베트남 북부의 젓줄인 홍강(紅江) 뿐 아니라 하노이와 하이퐁, 그리고 중부 해안의 주요 항구를 개방. 1883년 수도 Hue 공격으로 베트남 응우옌 왕조가 항복하자, 그해 8월 베트남을 속국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주의가 고조된 17c 들어서 네덜란드·영국·프랑스 등 쇄도. • 네덜란드인들은 1619년 자카르타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본부를 건설 후, 1641년 포르투갈로부터 말라카 쟁취 이후 18c 중엽까지 자바 섬의 거의 대부분을 이마직 지배로 두고 있던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늘자, 무역기지와 중계무역항으로. 1786년 말레이 Penang 섬을 획득하고 1819년에는 싱가포르를 건설.
---	---

말라카 왕국은 이슬람과 교역확대를 위해 이슬람교 받아들이고 중국과 아랍을 이어 동서 무역의 중계항으로 자리잡음



필리핀

민주주의 단절 경험이 있으나, PEOPLE POWER REVOLUTION 민주화 운동을 통해 독재 종식 후 민주주의 복원

2004 년부터 대통령 직선제

싱가포르

의회 내각제, BUT 인민행동당이 오늘날까지 모두 승리 집권

정당블록투표제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 1 표라도 많이 득표한 정당이 해당 선거구 의석 전체 장악

캄보디아

훈센 주도 캄보디아 인민당이 과반 점유, 캄보디아 구국당 해산뒤 독재

태국

정치적 혼란에 쿠데타 사용

미얀마: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하도록 함

베트남과 라오스

베트남공산당, 라오인민혁명당

브루나이: 자원의 저주로 부유한 자원덕에 정치가 엉망